

# TOGETHER Harim



# 앵커링 효과

특정한 숫자나 기준점이 되어 이후의 판단에 왜곡 혹은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컫는 용어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다니엘 카너먼 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Amos Tversky에 의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맛을 내린 배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앵커링 효과는 쇼핑, 비즈니스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30%, 50% 할인, 원 플러스 원 행사 등 기존 가격을 아는 상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될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 들게끔 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02	<b>기획포커스</b>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2	<b>제품이야기</b> 이달의 신제품	19	<b>슬기로운 MZ생활</b>
04	<b>트렌드 리포트</b> 이달의 트렌드는?	14	<b>하림인 이야기</b> 노사지원팀	20	<b>비즈니스 잉글리쉬</b>
06	<b>대리점 탐방</b> 주식회사 창성	16	<b>전국 닭 요리</b> 서울-계시	21	<b>눈으로 보는 하림</b>
08	<b>하림 뉴스</b> 2025년 5월	18	<b>MZ생각</b> 퇴근 후 나를 위한 루틴	22	<b>하림의 봄</b>
				23	<b>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b>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6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http://www.harim.com)

# 돌고 돌아 그때로

레트로 그리고 뉴트로 열풍



유행은 다시 돌아오곤 한다. 과거는 늘 현재를 자극하는 재료로 남아 있고, 시대가 반복되듯 유행도 순환한다. 레트로는 회상, 회고, 추억을 뜻하는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줄임말이다. 레트로 열풍은 한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본격적인 시작은 2010년대 ‘뉴트로’라는 이름으로 본격화했는데 새로운(New)과 복고(Retro)를 결합한 단어로,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찾아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대중문화에서 본격 확산, 20년 이후 MZ세대가 주도하는 감성 소비로 레트로 열풍은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며 과거 시대가 재조명 받고, 젊은 세대는 직접 겪지 못한 시대에 대한 낯선 신선함을 느꼈다. 이를 통해 옛 간식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패션업계에선 90년대 브랜드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는 1970~19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인기가 복고 패션의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양은 소재 밥상과 주전자, 접시 등 양은 시리즈의 매출도 증가했고, 고무신과 전통 스낵의 판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레트로 감성은 다양한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감성 코드가 된 레트로는 취미로도 이어졌는데, 옛 취미로 잊혀졌던 뜨개질이 힐링 트렌드가 되면서 한 영화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뜨개상 영화’를 개최하고 있다. 독서를 멋지게 여기는 텍스트힙(Text Hip)<sup>1)</sup> 트렌드가 ‘쓰기’로도 이어지며, 장문의 글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라이팅힙(Writing Hip)’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쇼츠, 릴스 등 자극적인 짧은 콘텐츠에 치진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또 lp와 카세트테이프가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 lp, 카세트 테이프 버전의 앨범을 출시하기도 한다. 90~00년대에 인기 있던 브랜드들이 다시 인기를 끌며 힙한 이미지로 재해석되기도, 전원일기부터 아인시대 등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는 역주행 인기를 모으기도, 디자인 및 영상 효과에서도 레트로 감성이 확장되기도 한다.

식품업계도 레트로 열풍은 한창이다.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단종시켰던 제품을 재소환하거나 레트로 패키지를 입힌 한정품을 출시해 구매 욕구를 자극시킨다. 과거에 즐겼던 맛을 다시 찾고자하는 중장년층의 감성, 신선한 경험을 원하는 MZ세대의 호기심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SNS와 유튜브 등에서 후기를 공유하는 문화 덕에 복고 제품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되기도 한다.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인 ‘노포’ 식당에 젊은이들이 몰리기도 하고, 복고풍 감성을 담은 음식과 정감 가는 인테리어를 담은 식당까지 사랑받고 있다.

레트로 열풍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 이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레트로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에 반응하는 하나의 문화적 흐름과도 같다. 순환하는 문화 트렌드 안에서 신선함과 개성, 트렌드와 결합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 익숙한 낯설, 낯선 익숙함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금도 훗날엔 그리운 과거가 되지 않을까? 수많은 레트로 안에서 다시 깨나볼, 다시 재해석될 오늘을 더 느끼게 애정해보자.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1) 힙 : 영어 단어인 ‘힙(hip)’에 한국어인 ‘-하다’를 붙인 말.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

진국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주식회사 창성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주식회사 창성은 농협 전문 유통회사다. 이상도(46) 대표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부동산 정비 사업,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일하던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농협 유통 부문에서 근무하셨고, 집안 자체가 '농협 집안'이라 할 만큼 농협과의 인연이 깊었다. '진실만큼 좋은 영업은 없다'는 철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서울 창동에서 사업을 시작해 의정부를 거쳐 지금의 양주로 자리를 잡아 농협 전문 유통회사로 만들었다.

대표 이상도



**Q. 대표님은 어떻게 유통업에 발을 들이시게 되었나요?**

2011년 생활용품을 농협에 납품하면서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엔 품목도 얼마 안 됐고, 전국을 돌면서 직접 매장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맥도 쌓이고 매장 수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커졌습니다. 2015년엔 식품 유통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농협내 식품 대리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농협 전문 유통회사입니다.



**Q. 현재 회사 규모와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 직원 32명, 계약직 105명 규모로, 비식품은 전국 350개, 식품은 수도권 북부 70여 개 매장에서 유통하고 있으며 그중 하림 제품을 납품하는 매장은 14개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30억 원이며, 올해 목표는 150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목표를 잡을 때마다 항상 달성해 높게 잡게 되었습니다. 하림과 거래를 시작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매출이 적지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Q. 하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하림 쪽에서 먼저 미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방향성과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림 제품은 인지도가 높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하림의 훌륭한 제품들의 홍보가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좋은 상품이 매장에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Q. 차별화된 영업 방식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인맥 중심의 영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매장 하나하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대표인 저도 영업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입점부터 배송, 진열, 전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 다능한 인재로 키우고 있고, 한 사람이 10~15개 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퇴근제'를 도입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마치면 퇴근 시간 구애 받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Q. 유통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업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서 자금 압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품목을 다양화하고 매장을 늘리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반면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힘들게 버틴 결과로 지금의 회사를 만들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게 된 지금입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는 걸 보면, 그 책임감과 뿌듯함이 저를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Q.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농협과의 거래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매장에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경험했지만, 농협 유통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과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1

육가공 사업 부문, 조운호 사장 취임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추진할 것



우리 회사 육가공 사업 부문 사장에 조운호(趙雲浩) 전 하이트진로음료 CEO가 지난달 7일 취임했다. 지난달 13일 우리 회사는 취임식을 열고 국민의례, 취임사, 배지 및 회사기 전달, 사가 제창,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아침햇살' '초록매실' 등으로 음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운호 사장은 우리 회사 육가공사업 부문의 영업 마케팅을 총괄하게 된다.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졸업했으며 1981년 제일은행(現 SC제일은행) 행원으로 입사해 웅진그룹 기초설 팀장, 웅진식품(주)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쳐 세라젬그룹 부회장, (주)얼썬 대표이사 사장, 하이트진로음료(주) 대표이사 사장까지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1999년 조사장은 웅진식품 CEO로 취임해 매출액 400억 원, 누적 경상적자 450억 원, 연평균 150억 추가 적자 상태이던 회사를 2년 만에

2,6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260억 원을 실현해 냈다. 특히 하이트진로음료 CEO 재임 6년 6개월간에는 매출 규모를 2.4배 성장시키고, 생수 중심 아이템에서 음료 부문 53%, 음료 매출을 7배 성장시키는 큰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운호 사장은 취임사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수익과 비용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하림 육가공사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기업 하림으로 키워 나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K-FOOD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닭고기에 관한 하림의 기준이 코리안 스탠더드, 그 코리안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하림을 만들어 가겠다"며 "하림그룹이 꿈꾸는 대한민국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는 종합식품 기업 퍼스트키친, 빅 픽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익철 차장

02

시장 안정화 위해 닭 공급 늘려  
소비자 및 농가 기반 보호에 나서



우리 회사가 최근 발생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에 안정적 수급 균형을 위해 닭 공급을 늘려 소비자 및 농가 기반 보호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공육 및 가공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브라질 총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 초 저병원성 AI, IB 등의 질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증체 지연 및 사육 성적이 저조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닭 및 종란이 살처분된 것과 동시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육계 공급이 줄어 차질을 빚었다.

2024년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184천 톤가량이며, 그중에 브라질산은 158천 톤 약 86% 수준으로 국내 닭고기 도축 수수가 1,022백만수(육용종계, 산란계 포함 전체)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20% 수준이다. 브라질산의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육 업체에서 브라질산 대체국으로 태국, 덴마크, 미국 등 기존에 닭고기 수입국에 수입 물량의 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닭고기 계열 회사들 또한 수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림은 육계 공급 부족에 대한 닭고기 공급에 적극 협조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의 생산량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5~6월 육계 기준 전년대비 105% 이상, 7~8월에는 전년대비 약 110% 이상의 공급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육계는 사육 기간이 짧아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닭 공급이 확대되면 사육농가의 사육회전이 높아져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농가수익 및 국내 농가 기반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온 국민의 주식과 간식으로 사랑 받는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닭 공급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제 역할을 통해 육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익철 차장

03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봉사활동 펼쳐  
임직원 20명, 지역사회 환경보호 앞장



우리 회사가 지난달 22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월 국립공원공단-전북지방환경청-(주)하림이 체결한 상호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회사의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왜가리 습지 일원 3,500㎡에 걸쳐 확산된 생태계 교란종인 큰금계국을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생식물의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하고 건강한 토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았다.

봉사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모여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직원으로부터 외래식물의 특징과 제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구역을 나누어 본격적인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김은중 지속경영팀장은 "오늘 임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새

만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토종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터전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래식물은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 회사는 이번 봉사활동이 새만금환경생태단지의 고유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외래식물 제거 활동 외에도 지난 4월에는 새만금생태단지 내 자생식물 식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4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155명에 하림치킨박스 선물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우리 회사는 지난달 2일,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도내 조식지원 학생 155명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용가리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하림의 '아침머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의 '아침머고' 지원 프로그램은 익산지역 내 교육소외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맞춤형 선물꾸러미를 전해주는 이벤트 행사도 함께 후원하고 있다. 하림의 사회공헌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월드비전과 익산교육지원청이 협력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아침머고' 조식지원 사업은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와 정서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올해 3월에도 익산지역 이리초등학교, 익산초등학교, 이리부천초등학교 총 3곳에 지원금 2천7백6십만 원을 지원했으며, 7년간 누적 후원액은 약 1억 8천700만 원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과 월드비전이 함께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피오봉사단 활동, 연말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헌혈, 군 장병 위문물품 후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5

현장 컨설팅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Aviagen 관리자 초청해 선진 사양 기술 공유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선진 사육 기술 습득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아비아젠(Aviagen)의 기술 서비스 관리자들을 초청하여 농가 방문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미국의 다국적 육종회사인 아비아젠은 하림이 원종계를 수입하는 회사로, 주기적으로 하림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방문 컨설팅은 사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 점검, 선진 사양 기술 컨설팅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품질 좋은 닭고기 생산을 위한 최적의 사양 관리, 사육 점검, 그리고 흑서기 사양 관리에 대한 중요 점검이 이루어졌다.

아비아젠 전문가들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종계 농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육계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방문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농장 점검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개선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성 사육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양 관리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 개선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담당자와 농장들이 선진 사양 기술을 습득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06

농가 안전 위한 전기 시설 점검 실시  
3개년 계획 통한 육계 농가 전기 안전 관리 강화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육계 농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전기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잠재적 위험 요소 사전 파악, 해결책 마련을 통해 농가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기 시설 점검은 3개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기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농가, 계사 건축 연수, 전기 안전 관리자 유무, 지역 관리자 점검 요청 등을 고려해 96개의 농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집중 점검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다. 점검은 전기 점검 전문가와 지역 관리자가 동행하여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기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며,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농가에 제시한다. 점검 결과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가 관리자는 발견된 개선점에 대해 단기 및 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개선이 완료되면 농가와 회사에 공유하여 전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현성 사육본부장은 “이번 전기 시설 점검은 농가의 안전과 성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육사업부는 이번 전기 시설 점검을 통해 농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07

최우수 도축장 지정 위해 노력

정읍, 익산공장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 진행



우리 회사가 최우수도축장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읍공장, 28일 익산공장은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 적정성 평가는 HACCP 인증 여부를 넘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외부 전문가 평가반 등이 HACCP 시스템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선행요건 관리, HACCP 관리, 미생물 수준, 위생운영관리 등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최우수 도축장 선정을 목표로 KOLAS 인증 획득, 민간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차별화된 위생 관리를 이어왔다.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120여 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1차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우수 도축장 6개를 선정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해, 오는 12월 최우수 도축장 1곳과 우수 도축장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양창호 식품안전센터장은 “익산, 정읍 공장은 국내 최고의 설비와 전문 인력을 운영하며 최우수 도축장 선정을 위해 항상 정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가장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회사 식품안전센터는 시설 및 설비 관리, 개인 위생관리, 선행요건 관리, HACCP 관리, 미생물 관리 등 전반적인 품질 관리 영역을 지속적인 보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08

“나눔의 가치와 안전 대응을 함께 키워요”

사랑의 간식 나눔 행사, 응급처치교육 등 진행



우리 회사 정읍공장은 위기 능력,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공장은 지난달 8~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간식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훈훈한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해 뜻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이번 행사로 모은 사랑의 간식 나눔 성금은 다가오는 연말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정읍공장은 또 지난달 15일,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응급상황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상처 처치(삼각건, 붕대) 등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황충기 대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었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대진 정읍공장장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며 “여러 활동들이 임직원들의 대응 역량, 나눔 문화 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김해진 과장

# NEW!

##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2종 출시

딤후라이딩 조각치킨, 순살치킨으로 바삭하게 즐겨



### 바삭한후라이드

우리 회사가 집에서 바삭한 치킨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딤 후라이딩 공법으로 튀긴 온 가족이 함께하는 후라이드 치킨 2종을 출시했다.

후라이드 조각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조각치킨 구성 그대로 한 팩에 담았다. 치킨집에서 튀기는 방식을 유사하게 구현해 바삭바삭하고 육즙이 가득한 게 특징이다.

다리 2개, 날개 2개, 몸통까지 넉넉하게 들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후라이드 순살치킨은 100% 닭다리살로 만들어 부드럽고 촉촉한 맛이 일품이다. 뼈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후라이드 치킨 2종은 하림몰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달 중 소스치킨 4종(순살치킨 달콤양념, 소이갈릭, 크림버터, 소이갈릭 치킨봉)을 추가로 출시해 후라이드 치킨 6종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새내기자 | 이수민 사원

## 동글동글 귀여운 용가리치킨봉

소이갈릭, 달콤양념 2종으로 즐겨



### 용가리치킨봉

우리 회사가 동글동글 공룡알을 닮은 용가리치킨봉 2종을 출시했다.

용가리치킨봉은 국내산 닭가슴살과 안심을 넣어 통살 식감이 날 수 있게 만들었다.

자를 필요 없이 한 입 사이즈의 치킨봉으로 얇은 튀김옷을 입혀 입안 가득 고기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용가리치킨봉 소이갈릭은 국산 마늘과 쌀을 넣어 부드럽고 감칠맛이 높아진 간장 소스를 입혀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다.

용가리치킨봉 달콤양념은 국산 당근을 농축시킨 액기스와 토마토로 더 부드럽고 달콤해진 양념소스를 입혔다.

용가리치킨봉은 한 봉에 30여 알이 들어 있어 한 끼 식사로도, 안주로도 훌륭하다.

FrozenHMRBM팀 신유규 사원은 “아이들 반찬으로 인기 있는 용가리치킨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용가리가 탄생했다”며 “좀 더 다양한 맛으로 치킨 통살을 즐기며 많은 소비자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내기자 | 이수민 사원

## 하림X동대문 엽기떡볶이 콜라보 신제품 5종 출시

닭가슴살, 닭다리살과 화끈한 만남



우리 회사가 ‘동대문 엽기 떡볶이’와 손잡고 화끈한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인기 있는 엽기떡볶이 소스를 그대로 구현한 신제품 5종(△하림e닭 소스 잘 먹은 닭가슴살 엽기떡볶이 오리지널맛, 마라맛, 로제맛 △하림e닭 소스 잘 먹은 닭다리살 엽기떡볶이 오리지널맛, 마라맛)을 출시했다.

최근 식품업계는 이른바 ‘아는 맛’ 끼리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익숙하지만 새롭게 재해석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과 기대 이상의 만족을 안기고 있다. 하림 역시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에 ‘동대문엽기떡볶이’의 시그니처 맛을 입혀 두 브랜드의 강점을 극대화한 이색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하림e닭 소스 잘 먹은 닭가슴살 · 닭다리살’은 매콤한 엽기떡볶이 소스에 12시간 동안 재워 더욱 촉촉한 육질을 살리고, 하림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속성공법으로 속까지 양념이 진하게 배도록 했다. 제품 한 개(110g) 당 단백질은 최대 23g으로 풍부한 반면, 당 함량은 3.6g에 불과한 저당제품으로 다이어트 중인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제품은 해동 후 포장지를 살짝 뜯어 전자레인지에 약 30~40초만 데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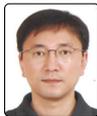
하림은 18일까지 ‘네이버 신상위크’ 단독 론칭 행사를 진행하며, 이번 협업을 기념해 행사 기간 중 ‘하림x동대문엽기떡볶이 콜라보 패키지’를 구매한 선착순 1,000명에게 동대문엽기떡볶이 전용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대문엽기떡볶이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행사 첫날인 12일 오전 11 시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판매 기념 구매 인증 등의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이후 19일부터는 하림몰(www.harimmall.com) 등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FreshHMRBM팀 박유민 사원은 “지난해 떡볶이, 양념치킨, 갈비 등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닭가슴살에 접목해 큰 호응을 얻었던 ‘소스 잘 먹은 닭가슴살’에 이어 ‘동대문엽기떡볶이’와 협업으로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올해는 하림과 엽기떡볶이의 검증된 맛으로 더욱 맛있게 식단 관리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 밑으니까 통(通)한다

## 하림 노사지원팀



**김현 팀장**  
노사지원 총괄



**전운진 과장**  
퇴직정산/보험정산/복리후생 담당



**이유범 과장**  
현장직채용/노무관리 담당



**송보미 과장**  
임금/근태/사우회 담당

1.

하림 노사지원팀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현 팀장

노사지원팀은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와 직원 간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노동조합과의 소통, 노사협의회 운영, 현장 직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관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근무 관련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전은진 과장

첫 번째,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함 운영, 유선 접수, 면담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 고충이 접수되면, 즉시 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비밀을 엄수하여 처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해당 고충은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을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임금 관련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나요?



송보미 과장

임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같은 법적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 규정 등 사내 규정입니다. 매월 임금은 직원들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기본급,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

노사지원팀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전은진 과장

노사지원팀의 주요 역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심도 있는 법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와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원활한 협상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김현 팀장

작년(2024년)에 채용된 신규 입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생일마다 마음을 담은 생일카드와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침 6월이 생일이시기에, 저희는 평소처럼 따뜻한 축하 문구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의 아버님께서 저희 대표이사님께 정성스러운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자녀분의 취업에 대한 기쁨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에서 느꼈던 아버님의 진심은, 하림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에피소드 중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직원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업무 효율만을 위한 사무적인 관계로 한정 짓기보다,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노사지원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송보미 과장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희 노사지원팀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소통을 지원하고, 서로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지향합니다.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7.

향후 목표나 다짐



김현 팀장

노사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참여형 조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사지원팀 파이팅!

## 닭국수의 신세계 '계시(닭계, 베풀 시)'

서울 강서구의 숨은 맛집 '계시'는 수비드한 닭고기로 다양한 면 요리를 선보이는 특별한 공간이다. 따뜻한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시원한 면을 찾는 사람, 비빔면을 선호하는 사람까지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만한 메뉴가 가득하다.



### <대표 메뉴>

- 닭국수
- 계면
- 마계소바
- 냉소바
- 가라아게

### <정보>

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63  
 마곡디엠프라자 1층 108,110호  
 번호 : 0507-1323-3800  
 편의 시설 및 서비스 : 단체 이용 가능, 배달 가능  
 포장 가능, 주차 1시간 무료





#### 감칠맛의 진수를 담은 쇼유라멘, '계멘'

라멘 마니아라면 주목해야 할 메뉴 '계멘'은 간장 베이스의 쇼유라멘으로 깔끔하고 깊은 국물 맛이 특징이다. 특히 듬뿍 들어간 다진 마늘이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리며, 닭다리살로 만든 차슈는 딱딱함 없이 촉촉하고 부드럽다. 고명으로 올라간 구운 팽이버섯은 은은한 향을 더해 국물과의 조화를 완성 시킨다.

#### 닭갈비와 마제소바의 신선한 만남, '마계소바'

일본식 비빔 라멘인 마제소바를 한국식 닭갈비 스타일로 재해석한 '마계소바'는 그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먹음직스럽게 올라간 수란을 터뜨려 비비면 노른자가 면을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풍미를 전해준다. 마지막에는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 먹는 게 필수다. 잘게 썬 고명과 밥알이 어우러져 마지막 한 입까지 만족스럽다.

#### 여름철 입맛 살리는 한정 메뉴, '냉소바'

다가오는 여름, 시원함이 간절할 때 찾게 되는 냉소바도 있다. 보기만 해도 청량한 비주얼에 시원함이 전해진다. 차가운 면과 닭고기 차슈의 조합은 의외로 잘 어울리며, 라임 슬라이스가 더해져 상큼한 풍미까지 선사한다. 여름 한정 메뉴로,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맛이다.

#### 메인 메뉴 같은 존재감을 자랑하는 '가라아게'

계시의 유일한 사이드 메뉴인 가라아게는 극강의 바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자랑한다. 닭다리살을 사용해 속은 촉촉하고 튀김 옷은 적당한 두께로 바삭함을 극대화했다. 함께 제공되는 와사비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고소함과 매콤함이 입 안에서 어우러지며 젓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계시의 육수는 각종 한약재와 채소를 넣고 8시간 이상 푹 끓여 정성을 담았다. 닭고기와 생면의 다채로운 조화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장님의 철학이 음식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닭고기와 면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맛보고 싶다면? 서울 강서구 '계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 퇴근 후 나를 위한 루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MZ세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퇴근길, 자주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됐다.” 하루종일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다 보면,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문 닫는 순간이 가장 편하다. 그때부터는 누구의 팀원도 아닌 그냥 ‘나’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퇴근 후 나만의 루틴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혹은 무겁게 **오운완**<sup>1)</sup>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다. 또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 후 소파에 누워 예능이나 밀린 드라마 정주행을 하기도, 하루의 마무리를 가만히 독서로 시간을 보내기도, 좋아하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기도 한다. 꼭 결과물이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고 편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퇴근 후의 시간은 나 자신을 정비하고 재충전, 더불어 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다.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서로 주고 받는 것 말고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라는 말 한 마디가 나 자신에겐 참 어렵다. 때론 퇴근 후의 시간이 지치고 피곤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나를 위한 한 마디의 위로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별거 아닌 습관 내 삶을 바꾸는 것처럼, 나의 하루에 작은 대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재정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짧은 시간, 퇴근 후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금세 지치기 쉽다. 회사에서는 ‘일 잘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내일을 조금 더 잘 살아낼 수 있다. 지난 밤, 나의 퇴근 후 루틴은 어떠했나? 조금 더 회복하는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의 루틴은 조금 더 달리 보내보면 어떨까? 내가 나답게 있기 위한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만들어보자.

**계란사업팀 이지우 사원**

1) 오운완 :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 스스로 정해놓은 일일 운동량을 완료하고 SNS에 인증하면서 일종의 운동 약속 챌린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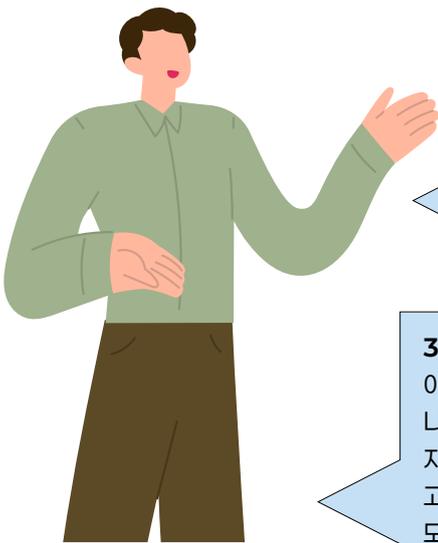
# 우리 좀 더 괜찮은 MZ가 되어보지 않을까?

MZ인 나, MZ를 말한다. 나도 MZ지만 이걸 좀 아니다..할 때 있어요!  
조금 더 괜찮은 MZ로 일하고 싶은 우리를 위한, 소소한 생각들입니다. 함께 공감해보실래요?



## 1. '감정 표현의 자유', 배려도 함께였으면 해요

요즘 '감정 표현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솔직한 감정 표현, 찬성입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까지 솔직해지다 보니, 간혹 듣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 안 좋아요, 말 걸지 마세요" 같은 말은 의도는 알겠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과 예의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함과 배려, 두 개 다 챙기는 게 진짜 MZ스러움 아닐까요? :)



## 2. 불만은 좋지만, '프로블펀러'는 사양할게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불만이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저 역시 회사에 바라는 점도 많고, 때때로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는 MZ세대 직원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거나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은 저에게도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만 가끔은, 모든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주변 분위기를까지 무겁게 만드는 모습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훨씬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3.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MZ세대가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 시 간단한 인사 없이 바로 본문만 말하거나, 사내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는 모습은 때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인사는 사소해 보이지만,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고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더 좋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4.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라도 해주세요!

요즘 MZ세대에게는 '콜포비아'라는 단어가 꽤 익숙할 정도로,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업무 중에는 통화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땐 간단한 문자나 메시지로라도 회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응답 하나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으로 이어지니까요.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도, 원활한 소통은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 5. '혼자'도 좋지만, 가끔은 '같이'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저도 MZ세대이고, 저 역시 퇴근 후의 자유로운 시간이나, 사적인 영역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료들과도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선호하죠. 하지만 때로는 MZ세대가 '개인'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있어요. 회식이나 단체활동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공동체 생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해요. 회사도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협업과 연대 의식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내기자 | 송다운 대리

#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이제 파워당당하게 의견 말하자! (회의에서 의견 제시하기)

## <의견 제시 기본 샘플>

**Manager** : Jane, (A)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proposal?

**Jane** : (B)I think it's a great idea, but I have a few concerns about the budget.

**Manager** : That's a valid point. Could you elaborate?

**Jane** : Sure. (C)Based on my calculations, the cost may exceed our initial estimate. (C)Perhaps we could consider a more cost-effective approach.

**Manager** : That makes sense. Let's explore alternative options.

**Jane** : I can prepare a comparison table with some alternative suppliers. That might help us make a more informed decision.

**Manager** : Excellent suggestion. Please share the table in our next meeting.

**Manager** : 제인,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Jane**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Manager** : 좋은 지적이네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Jane** : 네. 제 계산에 따르면 비용이 초기 예상치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Manager** : 합리적인 의견이네요. 대안 옵션을 검토해 봅시다.

**Jane** : 몇몇 대안 공급업체와의 비교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anager** :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 회의 때 표를 공유해 주세요.



## <의견 제시 기본 패턴>

### (A)의견 요청하기 (Asking for opinions)

-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How do you see this from your perspective? (귀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Do you have any input on this?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요?)
- What's your take on this proposal?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B) 의견 제시하기 (Giving opinions)

- I think it's a great idea, but...(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 One concern I have is...(제가 우려하는 점은...)
- From my point of view, it could create some risks. (제 관점에서는 몇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n my opinion, we might want to reconsider the timeline. (제 생각에는 일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C) 의견 뒷받침하기 (Supporting opinions)

- Based on my calculations (제 계산/생각에 따르면)
- From what I've seen / heard / experienced, ... (제가 봤던/들었던/경험한 바로는...)
- If we look at the data, it clearly shows that...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According to (our survey / report / market analysis), ... (우리의 설문조사/보고서/시장 분석에 따르면...)
- Perhaps we could consider a more cost-effective approach.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It could be worth exploring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0507

익산세무서장



0508

대구한의대학교



0512

농협은행 지점장



0512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0513

홍익 탁재업 사장



0516

기자단 팸투어



0521

익산시 자율방범대



0524

삼성서울병원



0524

피오봉사단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5월에는 익산시청, 삼성서울병원, 익산세무서, 전북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전북캠핑클럽, 경남로봇고등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3,371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 2025 제4회 하림의 봄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설레는 '하림의 봄'을 가장 잘 표현한 총 21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58건의 접수 작품 중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화합상 4명, 유쾌상 4명, 특별상 2명 등 총 21명이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상

꽃들과와 꽃순이

이흥구 총무팀



최우수상

하림 스마일꽃 축제!

하창원 생산1팀(익산)



최우수상

하림 팬클럽 가입 합시다

김현주 업무지원팀



우수상

가디언즈 오브 하림

송은아 생산1팀(익산)



우수상

Spring Love

유소연 생산관리팀



우수상

우리는 품질지킴이!  
웃음꽃 피우며 위생도 철저하게!

이희자  
식품안전1팀(익산)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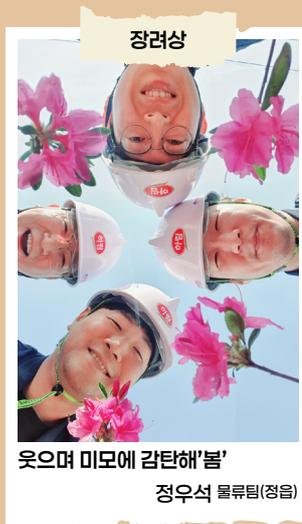
봄빛미소

강성빈 생산1팀(익산)



장려상

노란 봄 햇살 한 줄 머리에 얹고..  
이미주,장제석, 박유진, 신서영  
온라인사업부



장려상

웃으며 미모에 감탄해'봄'  
정우석 물류팀(경음)



장려상

하림 홍보대사 등장  
임기재 생산1팀(익산)



장려상

하림 천지창조

김지연 총무팀

똑!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 닭고기 부위별 특징

## 에 대해 알아보자!

도계 후 1.4kg 닭 기준



**닭고기 부위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자주 먹는 부위부터 숨은 특수부위까지, 알아보아요

**복채**  
 중량: 약 100g  
 특징: 닭다리 아랫부분으로 잡기 편하고 치킨에서 인기 많은 부위. 북 치는 채를 닭아 복채! 

**정육(thigh)**  
 중량: 약 180g  
 특징: 뼈 없는 닭다리살 (허벅지)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해 닭갈비용으로 제격 

**닭가슴살(2개)**  
 중량: 약 280g  
 특징: 고단백, 저지방, 담백해서 건강식에 딱! 

**안심(2개)**  
 중량: 약 65g  
 특징: 부드러움 최고!  
 이유식으로도 즐겨요 

**닭날개(2개)**  
 중량: 약 145g  
 특징 - 봉: 윗날개로 살이 많고 쫄깃해요.  
 - 윙: 아랫날개로 바삭하게 튀기면 별미! 

**닭발(2개)**  
 중량: 약 48g  
 특징: 콜라겐 풍부!  
 매콤하게 즐기면 술안주로 최고! 

**닭목살**  
 중량: 약 16g  
 특징: 양은 적지만 쫄깃하고 고소!  
 씹는 맛이 뛰어난 은근한 별미로 마니아층에게 사랑받는 부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닭고기!  
오늘 저녁 닭고기 어때요~?

새내기자 | 이민정 대리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 애국 퀴즈!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병영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인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제 228호 추첨자**  
 이\*주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지\*연 완주군 삼례읍  
 산\*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자 대구광역시 북구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진한 육수와  
신선한 재료로 완성된  
하림 삼계탕



갓 잡은 닭고기의  
신선함을 담은 삼계탕으로  
무더위 대비하세요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http://www.harim.com)